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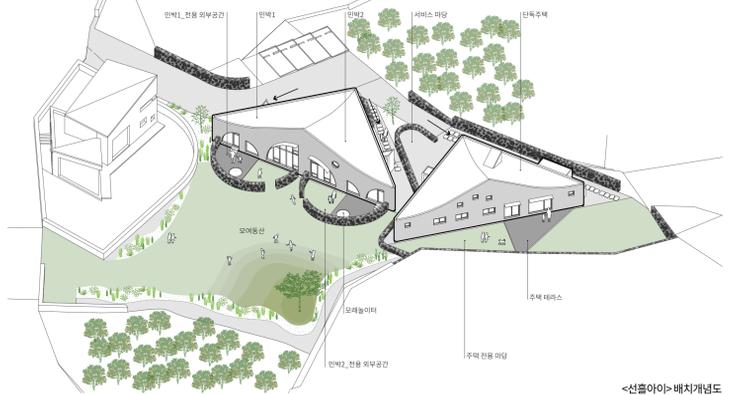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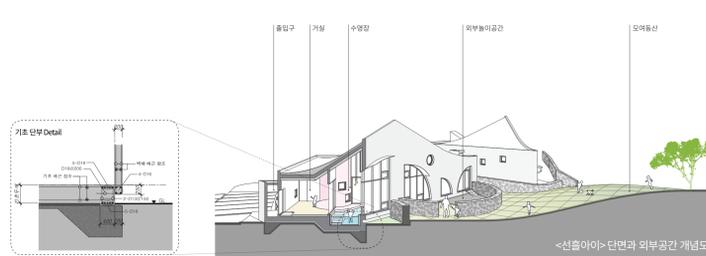
선힐아이

Stay in Sunheul

'선힐리에 아이들이 모인다.'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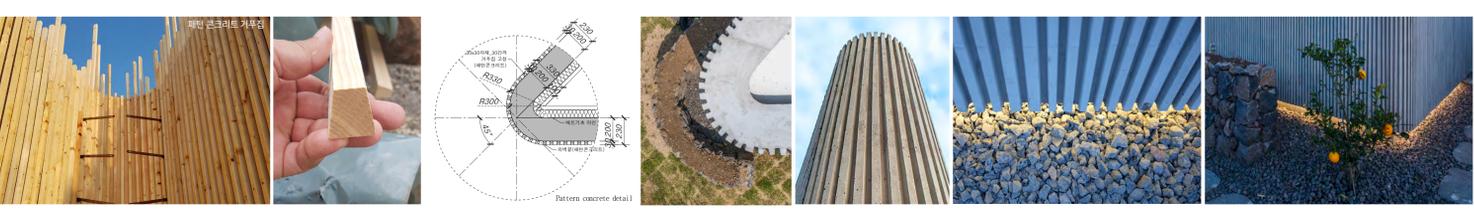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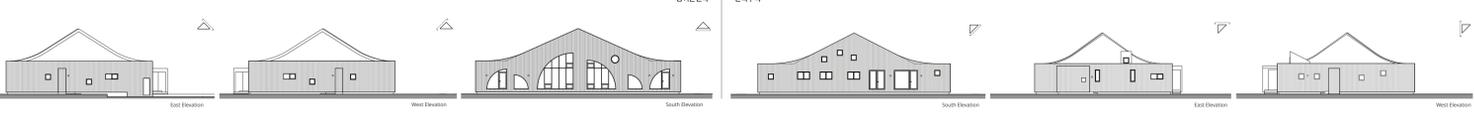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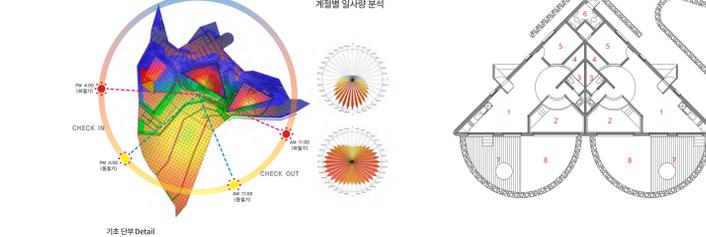
대정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힐리 1229-1 / 지역·지구 생활권리지역 / 주요용도 단독주택 / 대지면적 1,575㎡ / 건축면적 316.85㎡ / 인면적 236.19㎡ / 건피용 30.12% (법정 30%이하) / 용적률 18.8% (법정 8% 이하) / 규모 1층 (주건축물)·지상 1층, 2층 (부속건축물)·지상 1층 / 용이 1층: 7.00, 2층: 8.10 / 구조 철근콘크리트



제주도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건축주는 도심에서 오랜 기간 거주를 하다가 세 아이들과 함께 어릴 적 살던 제주 중산간의 선돌리로 이사를 계획을 하고 가족이 거주할 단독주택과 함께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인박을 계획했다. 원리산을 등지고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며 언덕과 굴 벌이 인상적인 대지에 자연이 배려가 되고 건축이 무대가 되는 작은 높이동산을 상상했다.

아이들에게 <같이>라는 공간과 <여행>에서 <같이>라는 공간은 어떤 차이일까? 부모와 함께하는 여행, 그때 <같이>라는 건축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?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태도를 찾는 과정으로 건축은 진행되었다.

오후 내 시 경 부채꼴 형태인 큰 창들을 통해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남서쪽으로 긴 면이 형성되게 건물을 배치하였다.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는 수영장에 햇빛이 비추는 반짝이며 약간의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첫인상을 주고 싶었다.



<집에 대한 기억을 "질감의 형태"로 공유한다.>

아이들에게 직관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단순하면서 완결된 형태가 쉽게 펼쳐지며 외부와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감을 형성하기를 바랐다. 선힐이라는 아이들에게 여행에서의 여행지에서의 여행지적인 장소로, 어른들에게 <유적>을 공유하는 장소로, 그리고 지역의 질감을 담은 <건축으로 기억되길 바란다.>



<집에 대한 기억을 "질감"으로 남긴다.>

건물의 표면은 목공 장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수직 패턴을 적용하였는데 돌담이나 원뿔상 등에서 느껴지는 거친 질감을 표현한다.

